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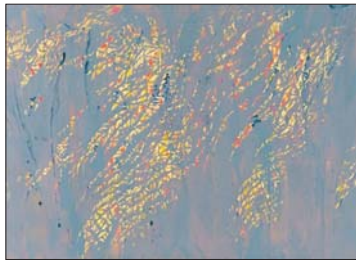
'인체풍경 - 주름, 아름다운 무늬(결)'

김철규 작가 24회 개인전 25일부터 사용자공유공간 Plan C서 개최

김철규 작가의 24회 개인전이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용자공유공간 Plan C에서 '인체풍경 - 주름, 아름다운 무늬(결)' 주제로 열린다.

작가에 따르면 화면의 색을 덜어내는 또는 갈아내는 과정을 통해 결국 조형적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주름의 흔적은 비워내는 방식을 통해 지나온 삶의 흔적을 화면에 채움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인생은 모든 것을 채우고 비워내는 과정의 연속이듯 삶을 채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며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살아온 과정의 거저 없는 흔적, 내면의 감정과 생각이 꾸밈없이 작용되고 살아온 환경의 영향과 육체의 운동을 통해 어떠한 관여도 없이 진실 된 기록 그대로의 흔적으로 육체에 새겨진 주름, 인간이 인간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 중 운명적 아닌 삶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대표적 인 것이 바로 주름이다. 그래서 주름은 한 사람의 내러티브,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인체풍경-주름, 22-1.

인간임을 보여준다.

주름은 인간의 신체 중에서도 가장 세계와 맞닿아있는 살갓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인간과 세계의 통로이자 매체이다. 과거와 현실의 삶이 공존하고 내면과 세계를 넘나들며 엮고 얽히게 하는 작용과 여기의 방식으로부터 저기의 방식으로 이행하는 작용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래서 주름으로 전해지는 느낌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체화되어 나타나는 삶의 현실이다.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삶을 인정하고 그 한계의 시간 안에서 또 다른 변화를 갖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개인으로써 인체의 주름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생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받아들이야 하는 변곡점이며 자신의 육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이는 변화의 시그널이다. 그러므로 주름의 받아들임은 삶 전반에 관한 긍정의 신호이며 진보적 방향으로의 진행인 것이다.

인체의 주름의 표현은 유한한 삶의 허무의 이야기라 아니며 뒤늦은 주름의 인지를 통한 후회와 삶보다 지각의 삶을 통해 변화와 확장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또한 추함의 인식을 넘어 주름이 담겨있는 의미의 재해석을 통해 미로사의 인지 변화를 꾀하며 초월적 변화를 통해 포용적이며 진취적인 방향으로 지향하려는 것이다.

한편, 김철규 작가는 조형예술학 박사다. 그는 홍익대학교 대학원(회화전공)과, 국립군산대학교 미술학과(서양화전공)를 졸업했다.

/장은성 기자

호주 · 한국 어린이 실시간 예술로 소통한다

전주문화재단, 어린이 교류 예술놀이 워크숍 '그림자로 말해요' 진행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문화예술 교육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6~27일 양일 간 호주-한국 어린이 교류 예술놀이 워크숍 '그림자로 말해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주문화재단과 호주 멜버른시 산하 공립기관인 아트플레이(ArtPlay, Melbourne)가 공동 주관하는 워크숍은 전주 팔복예술공장과 호주 아트플레이에서 원격으로 동시 진행, 한국과 호주 어린이들이 실시간으로 만나 예술로 소통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는 사진작가 유기중, 호주에서는 퍼포먼스 제시카 윌슨(Jessica Wilson)이 예술가로 참여, 양국의 8~13세 아동 20여 명이 사진 접수를 통해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제시카 윌슨 작가가 개발한 3종의 디지털 예술놀이 콘텐츠도 한국어로 공개된다. 한국어 버전은 이번 호주 문화다양성 주간을 맞아 최초 공개되며, 오는 5월 한국 문화다양성 주간을 맞아 추가로 3종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술놀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하고, 문화다양성 이슈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계기가 됐다"



며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전주시 예술놀이 국제포럼(오는 10월 예정)의 추진과 함께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머지않아 전주문화재단이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국제 교류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아동은 팔복예술공장 누리집을 통해 사진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예술놀이팀(063-283-9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 제4기 우리영화만들자 청소년영화캠프 시사회 진행

순창군이 영화나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청소년영화캠프'의 네 번째 결과물이 탄생했다.

21일 순창군에 따르면 '제4기 우리영화만들자 청소년영화캠프'를 통해 만들어진 단편영화가 지난 19일 순창의 작은영화관인 '천재의 공간 영화산업'에서 시사회를 가졌다.

시사회는 영화제작에 참여한 청소년과 가족 등이 참석하며 수료증 수여식과 함께 진행됐다. 이번에 소개된 단편영화는 순창지역 중학생 6명과 고등학생 6명 등 총 12명이 직접 제작하고 출연한 단편영화로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의 영화캠프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번 영화인 '도깨비가 산다'는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도깨비와 가상세계의 스토리로 풀어내었으며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는 청소년영화캠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의 현지 강사진과 전문가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단편영화 제작을 지원했다. 시나리오, 조명, 녹음, 연출, 편집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와 제작까지 모두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하는 과정을 마쳤다.

청소년 영화캠프를 지도한 여균동 영화감독은 "영화제작이라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가능하게 해준 순창군을 비롯해 제작, 진행, 맛있는 간식 등으로 다양한 도움을 주신 많은 단체와 개인에게 고맙다"며 "순창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출연까지 하면서 제작한 영화인데 아무런 사고 없이 멋진 영화를 만들어 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삼례문화예술촌서 김시오 작가 'Here we are! II' 전시 개최

원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김시오 작가의 'Here we are! II' 전시를 만난다.

21일 원주군에 따르면 삼례문화예술촌이 여섯 명의 지역작가와 함께 준비한 지역작가전시 시리즈 중 두 번째다.

전시에서는 작가가 삶에서 찾은 순간을 소재로 그려낸 35점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김 작가는 'Big Question'을 주제로 일상의 시

선에서 조금 비껴난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작가는 "다르게 보려는 노력이 아닌 다르게 보이는 순간을 마주할 때, 배경은 풍경이 되고 주인공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는 5월 10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시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제92회 춘향제' 5월 4일 성대한 축제의 막 올린다

5월 4~8일 광한루원 일원 등서 춘향제향 · 전국춘향선발대회 · 국악대전 등 진행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문화 축제인 제92회 춘향제가 5월 4일부터 8일까지 광한루원 일원과 요천에 마련된 무대에서 펼쳐진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은 계절독감 수준(0.05~0.1%)으로 낮아짐에 따라 지난 2년간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던 춘향제도 이제 분주하게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제92회 춘향제는 주제인 '다시, 사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담아냈으며, 광한루원의 완월정 무대를 메인으로 하고 예촌 마당과 요천의 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제92회 춘향제는 5월 4일 춘향제향과 함께 전국춘향선발대회를 시작으로 그 성대한 축제의 막을 올린다.

5일 어린이날에는 완월정 무대에서 개막식이 개최되고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열리며 6일부터 7일까지 ▲판소리, 보물위에 서다 ▲삼도 농악한마당 ▲서예 퍼포먼스 ▲스트릿 춘향 · 통통파이터 등의 공연이 마련되어 관객들을 기다리며 국내 최고의 국악 행사인 춘향 국악대전은 7일 진행된다.

특히 ▲스트릿 춘향 · 통통파이터는 국내 유명 댄서들에게서 춤을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



을 초빙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관객참여도 유도하여 즉석에서 댄스배틀을 벌이는 공연으로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춘향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경남원향우회가 주관하는 ▲시민 어울 마당에서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공연무대와 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동호회 및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기획하고 진행되는 공연이 계속되어 광한루원 행사와 함께 축제를 보러온 관람객들의 흥을 돋운다.

이 외에도 요천 일대에서는 ▲월매 주막 쉽터가 만들어져 남원시 배달 플랫폼인 '월매'를 통한 스마트 배달을 통해 각종 간식거리를 먹으며 주위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되며, 행사의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코로나19 시대 이후 오랜만에 남원 시민들이 함께하는 무대인 시민화합한마당이 펼쳐진다.

이밖에도 각종 상설 프로그램으로 ▲포토존 광한루 달빛정원과 광한루 경내에서 전통사회 생활을 재현하고 공연을 선보이는 ▲연희마당과 거리에서 퍼레이드와 함께 진행되는 ▲오감퍼포먼스,예루원 광장에 마련되는 ▲예루원 버스킹, 전통서당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당을 품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남원에서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체험해보는 ▲한복, 일상을 품는다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춘향제 기간 내내 펼쳐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